

## 1. 현대 국제정치사에서의 독일문제

1871년 비스마르크-빌헬름 1세가 ‘독일제국’을 세우면서 독일은 처음 하나의 국가로서 세계사에 등장한다. 1945년에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막강한 정치력과 경제력 및 군사력을 가진 독일은 유럽의 여러 주변국들에게 늘 위협적인 존재였다. 하나의 독일이 지닌 부정적 차원에서의 ‘존재감’은 비스마르크가 퇴임한 후 빌헬름 2세가 적극적으로 식민지 개척에 뛰어들며 영국, 프랑스 등과 패권을 다투다가 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 히틀러-나치당의 제3제국 시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전 세계를 다시 한 번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며, 홀로코스트라는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서도 나타났다.

## 2. 전후 독일

독일제국 건설의 주역인 프로이센은 ‘철과 피’를 강조한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였다. 그러한 프로이센의 영향으로 독일인들은 국가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생활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주의에 쉽게 순응하게 되었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4대 전승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하나의 독일이 유럽 및 세계의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분할 점령을 결정한다.

① 1943년 12월 테헤란 회담(이란): 연합국의 승리를 확신한 미국(루스벨트), 영국(처칠), 소련(스탈린) 참여 3거두회담으로 전후 독일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 - 독일과 베를린을 각각 3개 지역으로 분할 통치할 계획 세움

② 1945년 2월 얄타 회담(크림 반도): 전쟁 막바지에 미국(루스벨트), 영국(처칠), 소련(스탈린)이 개최한 회담으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전후 독일 처리에 대해 논의

- 프랑스까지 포함시켜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독일과 베를린을 4개 점령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기로 최종합의

- 독일인에게 최저 생계비 외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기로 함

- 나치 독일의 군수산업 폐쇄 내지 몰수

- 전범재판 계획

③ 1945년 7월- 8월 포츠담 회의(베를린 근교): 독일의 항복 선언 이후 미국(트루먼), 영국(처칠), 소련(스탈린)독일처리 문제 최종 합의(이 회담에서는 일본을 더 심도 있게 다룸)

④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1945년 11월 20일 - 1949년 4월 14일): 1945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독일의 전범과 유대인 학살 관련자 심판을 목적으로 한 국제 군사 재판. 침략 전쟁 공모와 참여, 계획, 실행과 전쟁 범죄, 비인도적 범죄(유대인 학살) 등의 죄를 물음

쟁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당시 논쟁이 된 부분은 사병 즉, 병사들과 하사관들의 경우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

- 제 1차 재판: 1945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까지 1년 동안 1급 전범 24명을 기소. 이들 중 2명은 구금 중 자살 또는 병사하여, 22명에 대하여만 판결이 내려짐: 헤르만 괴링을 비롯한 12명은 사형, 루돌프 헤스 등 3명은 종신형, 알베르트 슈페어 등은 징역형, 나머지 3명은 형 면제, 12명 중 헤르만 괴링(10월 15일 자살)을 제외한 11명의 사형은 10월 16일 집행됨.

- 제 2차 재판: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인 유대인 학살에 대한 재판. 1946년 12월부터 1949년 4월까지 진행.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의사, 관료, 법률가 185명 기소, 이들 중 25명에게 사형, 20명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 됨.

\*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 Adorno, 1903-1969): 유태계 사회학자, 철학자, 음악학자, 피아니스트, 작곡가, <계몽의 변증법>, <부정의 변증법>, <신 음악이론> 외

아도르노는 이성에 바탕을 둔 인간의 고유한 활동을 문화라고 파악한다. 아도르노는 대량 생산체제를 갖춘 문화산업이 대중문화를 낳으며, 기계적으로 생산된 문화에서 실상 문화의 본질은 파괴된다고 하였다. 때문에 문화 산업이 낳은 문화를 수용하는 대중은 표준화, 규격화, 상업화된 문화에 종속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산업이란 야만적 무의미, 동조, 권태, 현실도피의 조달자를 의미하며, 소비를 조장하는 문화산업의 ‘상품’들이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도록 대중을 조종하고 그들로 하여금 현 체제에 순응하게 한다고 보았다.

“아우슈비츠 이후로 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1949)

\*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 1909-1962): 유대인 학살과정 총 책임자였던 그는 1960년 5월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예루살렘으로 압송, 재판에 회부되어 서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은 1962년 4월 31일에서 5월 1일로 넘어가는 밤에 집행되었다.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을 결코 죽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어떠한 인간도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여하튼 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 그 일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해야 한 적이 없었다.”(아렌

트, 2006 74쪽 이하)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 독일 태생 유대계 정치이론가(정치철학자라고도 불리지만 한나 아렌트는 철학자라는 칭호를 거부한다. 이유는 ‘단독자인 인간’에게만 몰두하는 철학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전체주의의 기원>(1951), <인간의 조건>(1958),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1963)<sup>1</sup>,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1968), <폭력의 세기>(1969) 외

“[...] 아이히만은 기억력이 상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나 사건에 대해 동일한 전선 문구와 자기가 만든 상투어를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반복한 점 때문이다(자기가 스스로 만든 문장을 하나 말하더라도 그는 이 말이 상투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했다). 아르헨티나나 예루살렘에서 회고록을 쓸 때나 검찰에게 또는 법정에서 말할 때 그의 말은 언제나 동일했고,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었다.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하는 데 무능력함(inability to speak)은 그의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inability to think),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 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the words)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the presence of others)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reality as such)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아렌트, 2006 106쪽)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주 근엄한 태도로 교수대로 걸어갔다. 그는 붉은 포도주 한 병을 요구했고 그 절반을 마셨다. 그는 그에게 성서를 읽어주겠다고 제안한 개신교 목사 윌리엄 헐 목사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는 두 시간밖에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감방에서 형장에 이르는 50야드를 조용히 그리고 곳곳이 걸어갔다. 간수들이 그의 발목과 무릎을 묶자 그는 간수들에게 혈령하게 묶어서 자신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은색 두건을 머리에 쓰겠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로 남긴 기괴한 어리석음보다도 이 점을 더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신을 믿는 자**라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자기는 기독교 인이 아니며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일반적인 나치스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그는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죽음을 앞두고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던 것이다. 그의 ‘정신은 의기양양하게 되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sup>1</sup> 나치의 유대인학살 총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부터 사형집행까지를 1년여간 취재한 아렌트가 뉴욕의 시사 주간지 <뉴요커>에 1963년 4회에 걸쳐 연재한 심층기사를 엮은 책.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banality<sup>2</sup> of evil)**을.”(아렌트, 2006 348쪽 이하)

한나 아렌트가 든 아이히만이 유죄인 이유: 세가지 무능

① 말하기의 무능    ② 생각의 무능    ③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판단력의 무능

\* 파울 첼란(Paul Celan, 1920-1970): 루마니아 북부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시인, <유골함 속의 모래 1948>, <양귀비와 기억 1952>, <문지방에서 문지방으로 1955>, <언어격자 1959>, <자오선 1961>, <아무도 아닌 자의 장미 1963>, <숨돌리기 1967>, <실낱태양 1968>, <빛강박 1970> 외

“새벽 검은 우유 우리는 마신다 저녁에 마신다

우리는 낮에 아침에 마신다 밤에 마신다

우리는 마신다 마신다

우리는 공중에 무덤을 판다 그 곳에선 좀지 않게 누울 수 있다 [...]”

<죽음의 푸가> 중

\* 장 애머리(Jean Améry, 1912-1978): 오스트리아 태생 유대계 작가, 1955년에 한스 마이어(Hans Meyer)라는 이름 대신 장 애머리라는 필명을 쓰다가 1966년에 완전히 개명

“한 번은 지나갔어. [그렇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 22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바닥에 부러진 팔을 축 늘어뜨리고 혈떡거리며 나 자신을 책망해.”

3. 동·서 냉전 체제 - 분단된 독일(1945-1990)

① 1947년 1월 1일 미국과 영국은 각각 관할 지역을 미·영 경제통합지구로

② 소련은 자신의 관할 지역을 소련 식으로 재편성

③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트루먼 독트린(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1947년 3월 12일 공산주의 폭동으로 위협을 받고 있던 그리스 정부 및 지중해에서 소련의 압력을 받고 있던 터키에게 경제·군사적 원조를 약속한 선언)과 마셜플랜(1947년 6월 5일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C. 마셜이 하버드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유럽의 자립계획에 미국이 재정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가동

<sup>2</sup> banality: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을 담고 있지 못해 따분하기 그지없는 것’

④ 동•서 냉전 시작

⑤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정부) 수립(Bundesrepublik Deutschland -> BRD, 임시수도: 본)

⑥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정부) 수립(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DDR, 수도: 베를린)

⑦ 베를린 장벽(1961년 8월 13일 - 1989년 11월 9일): 냉전과 독일 분단의 상징. 서독에서는 서 베를린이 공산주의 국가 안의 유일한 자본주의 지역이라며 '붉은 바다 한 가운데의 섬 Insel im roten Meer'이라 부름. 그러나 동독에서는 이 장벽을 '반 파시스트 보호벽 Antifaschistischer Schutzwall'이라고 부름. 서 베를린으로의 탈주자가 이를 막기 위해 1961년 8월 13일에 만들어진 후 점차 보강되어 서 베를린 전 지역을 둘러싸게 됨.

4. 서쪽에서는

① “라인강의 기적”: 1940년대 말부터 서독에서 시작된 ‘놀랄만한’ 경제 성장은 1973년에 석유파동 때까지 서독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 '마셜 플랜'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였던 서독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 이를 발판으로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상당한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 내는 것에 성공, 세계적인 산업 대국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른다. 서독의 경제부흥의 중심에는 '아우토반'이라 불리는 고속도로가 큰 몫을 차지하며, 루르 지방의 중공업, 바이에른 일대의 자동차 산업 등이 주력 산업이었다. 1990년 통일 당시의 서독의 경제력은 세계 4위의 수준이었다.

② 68학생 혁명: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갈등 - 자식 세대들에 의한 전통과 가치 거부

“1968’은 상상력이 나라를 펼친 해이다”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 <격정과 혼란의 시기에 대한 기억> 중

-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0년대 말까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계속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점차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이 시기에 유럽인들은 유럽의 한 복판에서 벌어진 두 번의 전쟁 이전보다도 더 큰 경제적 번영과 안락을 누렸다. 그러나 전쟁 후에 태어난 자식 세대, 즉 전후 세대는 그들의 부모에게 반기를 든다. 부모 세대, 즉 기성 세대는 두 번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었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중추 역할을 하였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전후 세대는 그러나 기성 세대에게 물질만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저항

운동을 통해 정치, 사회, 정신문화의 경직성에 반항하였다.

- 베트남 전쟁: 예상보다 길어지는 베트남 전으로 고통 받던 미국에서는 참전을 거부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소리가 점차 커짐(반전 운동)

- 히피문화: 과거 사회규범을 깨는 젊은이들(소위 히피들)의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

- 독일에서의 68학생혁명, 그 본격적인 시작: 독일 내 68혁명의 거점 도시는 베를린이었으며, 점차 다른 대학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베를린이 학생 운동의 중심지가 된 이유는 베를린이 전승 4개국의 관할 통치하에 있어서 이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군복무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도시에 살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이 가진 상징성(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증거 = 베를린 장벽)때문에 가정이나 혹은 국가에 대한 반항의식이 강한 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베를린으로 향했다.

- 그러던 중 1967년 6월 독재자로 군림하던 이란의 국왕 팔레비가 베를린을 방문하게 되었고, 반대 시위를 하던 한 학생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학생운동의 불길이 매우 빠르게 독일 전역으로 번졌으며, 그간 반 권위주의 성격만을 띠던 학생 운동이 정치적 운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 아울러 학생들은 당시 독일 신문시장의 1/3을 장악해 ‘슈프링어 제국’이라고도 불린 슈프링어 그룹을 조작 및 편파 보도를 알삼는다면 공격하였다. 슈프링어 그룹에서 발간하는 신문들은 68운동 활동가들을 폭도, 미치광이라 일컬으며, 심지어 '나치 돌격대'에 비유하며,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 보도하였다. 때문에 68운동 활동가들은 여론을 선동한다며, '슈프링어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평소 슈프링어 그룹에서 발간하는 <빌트 Bild> 지를 즐겨 읽어 온 한 젊은이가 1968년 4월 “국민의지의 집행자”가 되겠다며, <빌트> 지가 “히틀러처럼 병적인” 선동가라고 묘사한 활동가 루디 두취케 암살을 시도하며 갈등은 더욱 첨예화 된다.

- 학생들은 1차적으로는 ① 반미, ② 월남전 반대, ③ 보수언론반대를 외쳤으며, 더 나아가 ④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 ⑤ 기성세대의 가치관, 규범, 도덕 등 거부, ⑥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권위의식에 반기를 들며, 정치적인 색깔을 강화해 나갔다.

- 학생들이 외친 슬로건들

• 나이 30이 넘는 자를 신뢰하지 말라. (Traue keinem über 30.)

• 금지하는 것이 금지된다. (Es ist verboten zu verbieten.)

• 너를 파괴하는 것들을 파괴하라. (Macht kaputt, was Euch kaputt macht.)

- 모택동 만세! (Es lebe Mao!)
- USA SA SS! (SA, SS는 히틀러 특수부대.)
- Ho-Ho-Ho-Chi-Min!
- Fremd-(낯선-), Bestimmung(규정), Emanzipation(해방), reflektieren(성찰하다), faschistoide Tendenzen(파쇼적 경향), ins Bewußtsein heben(자각하다), repressive Gewalt(강압적인 폭력), autoritäre Struktur(권위적인 구조) 등의 용어들을 즐겨 사용

- 학생운동(Studentenbewegung) 또는 학생폭동(Studentenrevolte)에서 혁명(68 Revolution)으로! 반 권위주의적인 교육, 여권신장, 성 해방, 가정 내에서 구성원간의 평등한 역할 분담, 편안한 일상복, 탈 권위적인 일상언어 사용 등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철저한 민주주의(Basisdemokratie)의 실천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들은 사회를 변화시켰다.

- 60년대까지 대학에서는 학교 행사 때 예복을 입었으나 이후로 폐지되었다.
- 나치 동조자들의 상당 수가 교사였던 관계로 60년대까지 나치 과거사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으며(실리는 경우는 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그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점차 개선되었다.
- 고등학교에서조차도 교사의 하부구조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교과내용에 관해 학생들과 합의를 본 후에야 내용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 교육 '기회의 균등'과 함께 평가의 기회균등까지 이루겠다며, 지식층을 부모로 가진 학생들에게 감점을 주어 '균등사회'를 이루겠다는 극단적 움직임도 있었다.
- 대학 내 학생식당과 달리, 더 고급스럽게 꾸며진 교수식당이 폐쇄되었다.
- 포르노 잡지를 더 이상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구입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 대학기숙사의 남학생, 여학생 층의 구분이 사라졌다.
- 대학 교수, 학생, 중간 구조 층으로 구성되는 3자 협의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 학생들 간에 더 이상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심지어 교수에게도 자극적으로 du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실패한 혁명?!?!? 초반 2년 간의 격동기, 그 후로 8년 간 서서히 진행된 냉각기:

68 학생 혁명은 초창기의 격렬함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된다. 이유는 ① 자

본주의를 타도하자는 학생들의 외침에 ‘배부른’ 노동자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② 정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대학구조 개혁, 교육개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무마정책을 펼쳤다. ③ 또한 1960년에 집권한 사민당 빌리 브란트Willy Brandt가 공산권과의 유화정책(Versöhnungspolitik), 동방정책(Ostpolitik)을 끈기 있게 끌고 나가며, 사회적인 불만을 잠재워 나갔으며, ④ 결정적으로 혁명의 불씨를 ‘건강하게’ 계속 지켜나가도록 구심점이 되어줄 조직이 없어 결국 학생들 스스로도 혁명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말았다(‘적군파’의 과격한 테러 등에 대한 환멸)

- 오늘날 68혁명에 대한 평가: 뜨거운 감자! 탈 권위주의가 교육에 미친 영향

68혁명 이후로 교육 분야에서는 전쟁 세대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었다면, 나치 과거사와 같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는 않았으리라는 인식에서 ‘탈 권위주의 교육’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탈 권위주의와 함께 전통적인 가치는 부정하기만 하였지,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권위를 포기한 교사들은 ...

- 그래서 다툼이, 싸움이, 전쟁이 끝났는가?

#### \* 참고문헌

임종대 외: 독일이야기 1, 서울: 거름 2000

잉그리트 길혀홀타이 지음, 정대성 옮김: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파주:창비, 2009

최연숙: 독일시선집, 서울: 신아사, 2013

한나 아렌트, 김선옥 옮김, 정화열 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사, 파주:한길사, 2006

황윤영, 김미경: 독일문화 오디세이, 서울: 글로벌콘텐츠, 2016